

공연예술창작산실

신작의 발견



2021. 12 ~
2022. 05

공연예술창작산실이란?

창작실험활동지원, 대본공모,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프리프로덕션, 공연, 재공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 창작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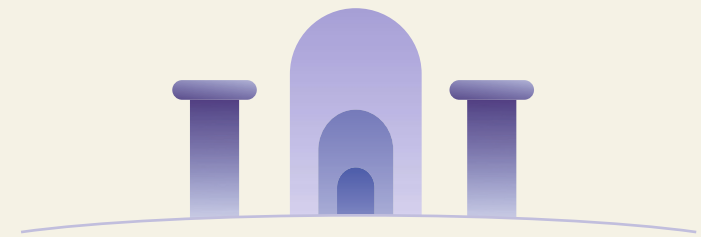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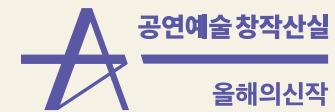
공연예술창작산실

신작의발견



올해의신작

올해의 신작



창작산실 자세히 보기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신작을 발견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프리프로덕션, 공연, 재공연까지 성장단계별지원을 통해 우수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대국민을 상대로 진행한 <공연예술창작산실 뉴 슬로건 공모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슬로건 '신작의 발견, 창작산실'이 탄생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검증된 작품임을 의미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Arko Selection)의 심벌마크는 Art의 A와 별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관객이 신작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은 작품성을 기반으로 더 큰 무대로 진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 · 창작뮤지컬 · 무용 · 전통예술 · 창작오페라

연극	메이드 인 세운상가	극단 명작 옥수수밭	10
	탈피	극단 Y	14
	신선방	극단 실한	18
	낮은 칼바람	팀 돌(Team 돌)	22
	콜타임	호랑이기운	26
	화로	극단 인어	30
	창작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주식회사 다이어트
#해시태그		㈜바움커뮤니케이션	40
PIP - 위대한 유산		극단 파파프로덕션	44
무용	모빌리티(Mobility)	멜랑콜리댄스컴퍼니	50
	굿(Exorcism)-사도	댄스씨어터 창	54
	28조톤	초록소	58
	조동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62
	senseless violence (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유장일	66
	윤희매십전(輪回梅十箋)	김유미	70
전통예술	정가악회 콘서트 <탈춤은 탈춤>	사단법인 정가악회	76
	TIMER	연희양상블 비단	80
	꼭두각시	음악동인고물	84
창작오페라	장충(The Trigger)	서울오페라양상블	90

신작의 발견



연극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메이드인 세운상가

극단 명작옥수수밭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30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19시 30분 / 토, 일 15시(월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20분 예정 | 티켓 : 40,000원 | 연출 : 최원종 | 작가 : 차근호 | 프로듀서 : 이시원 | 무대디자인 : 이창원 | 조명디자인 : 성미림 | 영상디자인 : 최종찬 | 음악감독 : 김동욱 | 의상디자인 : 박현주 | 소품디자인 : 윤미연 | 분장디자인 : 백지영 | 무대스태프 : 조수빈, 황연수, 권나현 | 기획 : 아트리버 | 출연진 : 김동현, 최무인, 오민석, 문상희, 김왕근, 하성민, 김늘메, 정상훈, 최영도, 공재민, 류경환, 장격수, 이창민, 김설빈, 박석원, 조수빈, 강수현, 김수민, 김동현, 이석진, 신무길, 강기혁

1980년대의 도시전설, 불가능을 모르는 세운상가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든다!

1986년 북한의 수공으로 서울 올림픽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세운상가의 사람들은 수공에서 서울을 지키고, 북한의 수중공격을 대비해 진짜 잠수함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 반공에 목숨 거는 불법 포르노 극장 주인, 빗 탕감을 위해 월복을 꿈꾸는 경찰관,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된 남파 간첩, 한국에서 버림받고 미국 입양아가 되었지만, 모국의 민주화를 위해 돌아온 MIT 출신 천재 공학도. 이들의 서로 다른 욕망은 잠수함 건조에 투영되며 87년 6월 항쟁까지 80년대 세운상가, 곧 한국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05년 창단된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명작이 풍성하게 열리는 옥수수밭'의 줄임말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최원종이 이끄는 단체이다. 2013년 <트라우마 수리공>, 2015년 <청춘, 간다>가 서울연극제에 공식참가작으로 초청되었으며, <청춘, 간다>는 대상과 희곡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 2013년 창작산실 우수공연 지원작에 선정된 <헤비메탈 걸스>는 2014년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되어 공연을 이어갔다. 2016년 <안녕 후쿠시마>, 2017년 <블루하츠>, 2018년 <어느 마술사 이야기>, 2019년 <외톨이들>, 2020년 <타자기 치는 남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에 선정된 작품들이다. <세기의 사나이>와 <간느로 가는 길>은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연극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연작시리즈를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사적 상황이 던진 딜레마와 '그 딜레마 앞에 선 소시민'이다. <어느 마술사 이야기>(1970년대), <세기의 사나이>(1910~1950년대), <간느로 가는 길>(1990년대), <타자기 치는 남자>(1980년대) 등 일련의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는 기억되고 전달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조명을 해야 하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메이드 인 세운상가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6년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댐을 건설해 서울을 물 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자칭 세운상가의 파수꾼인 주인공 차석만은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세운상가 사람들과 북한의 수공에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80년대의 세운상가는 도시 전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운상가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전투기, 미사일, 탱크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군인이 총을 잃어버려도 세운상가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차석만과 세운상가 사람들 외에도 김길호, 피터 존슨, 박연희는 이 작품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도박 빚 때문에 월북을 시도하려는 경찰 김길호,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돌아온 입양아 피터 존슨과 남파 간첩이지만 부동산 투자에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재산을 불려가는 박연희. 이 세 사람은 세운상가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1986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변모시킵니다.

2. 어찌 보면 민감한 소재 일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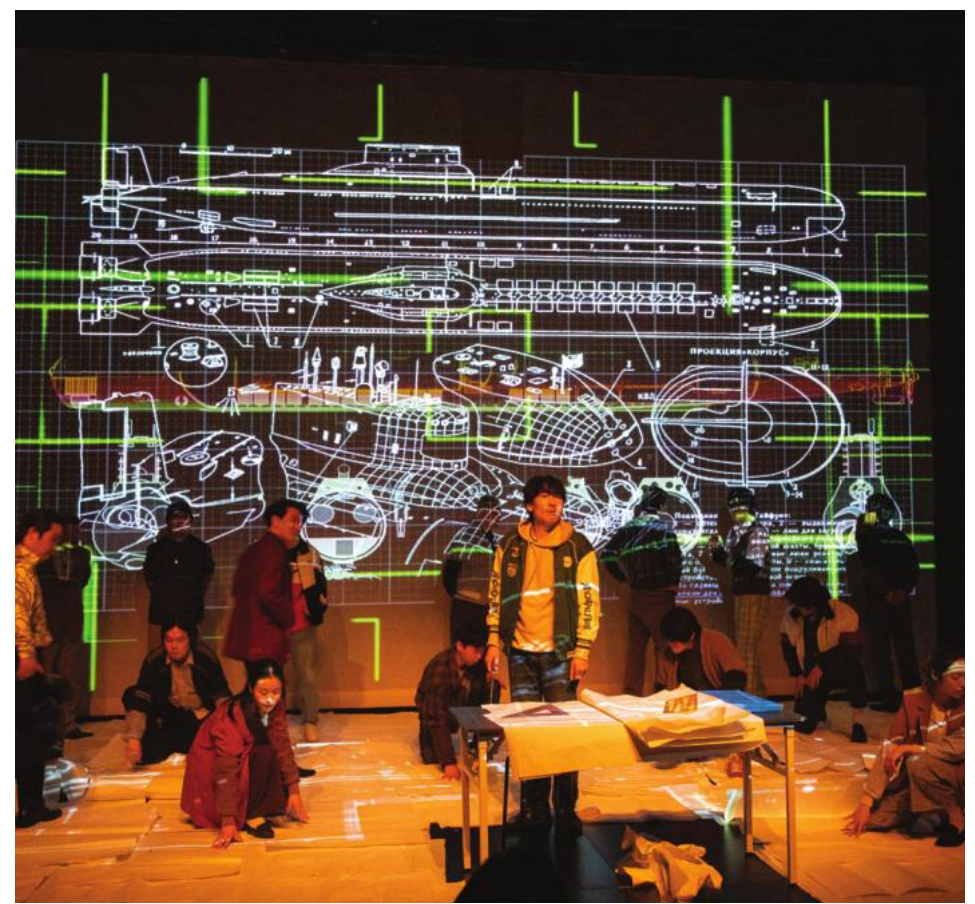
<메이드 인 세운상가>는 명작옥수수밭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의 한 작품입니다. 차근호 작가가 집필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역사적 상황이 던진 딜레마와 그 앞에 선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차석만, 세운상가 사람들, 김길호, 피터 존슨, 박연희는 각자 딜레마 앞에 섭니다. 딜레마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이 작품의 소재가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1980년대를 바라보는 상반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는 분명히 신군부의 독재가 자행되었던 폭력과 야만의 시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경제적 호황과 풍요를 상징하는 시대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저 시대로 찾아온 경제 호황 그 이면에는 헌법 파괴와 인권 유린이 일상

처럼 자행되었던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를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품은 부조리한 군사 정권이 어떻게 반공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아 시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정권의 연장을 위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갔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딜레마는 80년대 소시민의 욕망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과 거스를 수 없는 민주화의 열망입니다. 하지만 80년대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꿈꾼다면 부조리한 정권에 순응해야 했고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존재의 파멸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 80년대의 소시민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을 했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80년대 부조리한 권력이 소시민에게 던진 딜레마의 본질과 그 딜레마에서 선 소시민의 다양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동시대의 관객에게 “나라면 무엇을 선택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이 공연에서 1980년대의 세운상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운상가는 1967년에 준공되어 1987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운상가의 전성기와 쇠퇴기는 군사독재의 흥망성쇠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세운상가는 1987년 용산 전자상가의 등장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군사독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몰락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의 세운상가를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한국 사회를 은유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의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는 소품과 의상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운상가라는 공간적 배경을 경제적 풍요로움과 민주화의 열망이 충돌하는 딜레마의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딜레마



가 충돌하는 공간으로서의 세운상가. 이것을 형상화하는 것에 연출가로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4.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메이드 인 세운상가>는 1986년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민은 결코 과거의 고민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딜레마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딜레마는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딜레마의 근원에는 부조리한 권력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진 딜레마의 근원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현명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출가로서 이 작품이 동시대의 관객에게 우리 앞에 던져진 딜레마의 본질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 명작옥수수밭의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는 191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다루는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메이드 인 세운상가>를 포함해 지금까지 <어느 마을사 이야기>, <세기의 사나이>, <깁스로 가는 길>, <타자기 치는 남자>, <패션의 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배경으로 하는 <베른에서 온 사나이>, 1969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도끼를 맨 남자>, 1976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나는 카프 박사의 부하였다>를 순차적으로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한국 근현대사 재조명 시리즈>에 관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극

탈피

극단 Y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 2월 13일(일)

공연시간 : 평일 19시 30분 / 주말 15시 (월, 설연휴(2월1~2일) 쉬)

장소 : 아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75분 | 티켓 : 30,000원 | 극작 : 신호진 | 연출 : 강윤지 | 조연출 : 이수림 | PD : 최샘이 | 무대 감독 : 박진아 | 무대디자인 : 장호 | 조명디자인 : 홍유진 | 음향 감독 : 목소 | 의상디자인 : 김미나 | 분장디자인 : 장경숙 | 사진 / 그래픽디자인 : 박태양
움직임 : 하영미 | 수어통역 : 김보석, 남진영, 백수진 | 문자제작 및 음향오피 : 이청 | 조명오피 : 김소영 | 출연진 : 강서희, 하영미, 강다현, 정대용, 변승록, 이 산, 이강호, 백혜경

“아무한테도 안 미안하다고 얘기해. 소진아”

‘나와 아주 다른 존재와 나는 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실내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소진과 어느 날 돌연 탈피를 멈춘 뱀과의 교감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다. 오독 당해온 역사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자 한다.



작가 신호진

인간의 욕심으로 오랜 시간 아주 비좁은 곳에서 고통 받아왔던 ‘뱀’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낙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여성들에게 의지와 상관없이 찍힌 낙인들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아주 다른 두 존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서로를 구해줄 거라는 확신 역시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잃어버린 것들이 서로를 호명해준다면, 그들에게 씩워진 껍데기를 탈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누군가에겐 용기가, 누군가에겐 거북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표작 : <머핀과 치와와>, <밤에 먹는 무화과>, <남산예술센터대부흥성회>, <괄호는 괄호와 괄호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 <글쎄 어찌나 사소하고 어찌나 안 궁금한지>

극단 Y

페미니즘 연극을 만든다. 사회적 제도가 인간의 자아와 육체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 고찰한 <미의 기준> 시리즈, 프랑스의 임신중단사를 다룬 <344명의 쌍년들>, 다양한 젠더와 드랙을 결합시킨 <퍽킹젠더> 등 연극을 통해 꾸준히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규범과 젠더 질서에 질문을 던져왔다. ‘극단 Y’는 제작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에 대해 고민하며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계와 폭력에 저항한다. 더불어 연극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질문하며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탈피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4.6M의 알비노 비단 버마 구렁이는 탈피 중입니다. 소진은 파주의 실내 동물원 'The Zoo'의 파충류 전시관에 서 일합니다. 적막과 어둠이 가득한 파충류관에서 동물원의 마스크트였지만 이제는 퇴물이 되어버린 22살 알비노 비단 버마 구렁이는 탈피를 중단하고 활동을 멈춥니다. 동물원의 적자는 심해지고, 동물들은 정형 행동을 반복하며 병들어갑니다. 소진은 마침내 뱀의 탈피를 돕게 됩니다.

'나와 아주 다른 존재와 나는 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실내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 소진과 어느 날 돌연 탈피를 멈춘 뱀과의 교감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독 당해온 역사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 뱀과 소진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고민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뱀과 소진은 다르지만 비슷한 존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진이 바라보는 세상에 등장하는 뱀은 보는 관객에 따라 다양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해 나가고, 또 어떻게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아가는지, 그것이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3. 무대를 전시공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대를 전시공간으로 보이게 했다고 보다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전시되어 있는 기이하고 이질적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폭력과 고통이 쌓이는 곳에 그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이 폭력을 인지해가며 그 공간이 어떻게 뒤틀러가는가, 어떻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세상으로 축소 시켜 바라보게 되는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4. 기존 연극과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많은 고통과 죽음이 쌓여 있는 어떤 축약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부장제를 완전히 타파할 명료한 해답은 없지만 누군가에겐 경악할 만하고, 누군가에겐 시원할 만한 결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도 올바르게도 많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서 폐허가 된 공간 위에서 있을 소진을 함께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여성들은 어떤 폭력에서 벗어나기까지 수많은 시선을 받습니다. 동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살아나갈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호명하기까지 느꼈던 억압의 시간들은 그 누구의 시선으로도 오독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다소 엉망진창인 모습으로라도.



연극

신신방

극단 실한



일시 : 2022년 2월 12일(토) ~ 2월 20일(일)
 공연시간 : 평일 19시 / 주말 1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티켓 : 균일석 40,000원 | 작가 : 김도영 | 연출 : 서충식 | 드라마투르기 : 김옥란 | 움직임지도 : 남궁호 | 보이스코치 : 윤소희 | 안무 : 이산하 | 조연출 : 김동규 | 조연출·무대감독 : 이호진 | 무대디자인 : 신승렬 | 조명디자인 : 윤혜린 | 작곡·음악감독 : 조용경 | 의상 디자인 : 황연희, 고혜영 | 분장디자인 : 이지연 | 소품디자인 : EK | 사운드 : 안창용 | 그래픽 : 박태양 | 티켓매니저 : 김서희 | 기획PD : 임예지 | 제작PD : 우혜민 | 출연 : 강권석, 김수민, 김정은, 김정호, 김지수, 박상윤, 박창욱, 우혜민, 유성주, 윤소희, 이도영, 이의령, 이준희, 임지훈, 정현준, 조우현, 주연오 | 제작·주최 : 극단 실한

만추리아 드림에
우리 삶의 시선을 담다

1945년, 세계 전쟁이 점차 일본의 패전으로 기울어갈 즈음. 남만주 철도가 경성까지 이어지던 드넓은 벌판. 먼지서린 만주엔 방직공장 신신방이 있다. 일본군복을 만들어 파는 군납공장 신신방은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나, 일본인으로 자란 가네다와 유지, 미나미, 고갱이 만추리아 드림을 품고 만주에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전쟁 노선을 따라 점차 사업이 확장되고 있던 어느 날, 신신방으로 만주개척민훈련소를 나온 영란이 찾아온다. 그리고 접어든 1945년 4월. 오키나와 전투가 80여 일간 지속되나 군복은 점점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는데...



극단 실한

극단 실한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문제의 제기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레라미 프로젝트>, <훈마라비해?>, <낯선 이>, <Mad베젠고> 등 사회를 구성하는 동시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대에 옮겨왔습니다.

10인 이상의 단원이 다각도로 접근한 공동창작극 제작을 통해 작품이 담는 메시지에 섬세함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미발표된 국내 초연작을 발굴/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국내 연극계의 발전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신방>은 일제 강점기 하에 만주로 떠나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 속에서 강제 개척민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식민지 자본에 기대어 전쟁에 동원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수많은 이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친일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청년 사업가이자 친일파로 기억되는 우리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그리고자 합니다

2. 만추리아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2022년에 전 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빌어먹고 살기 힘든 땅, 그런 시절. 만추리아 드림은 그 배경에서 탄생한 말이자, 염원입니다. 만추리아 드림이 이민과 개척을 통하여 부를 향한 소망이었다면, 헬조선, 3포 세대에겐 코인, 주식, 부동산, 즉 영끌의 시대입니다. 만몽을 꿈꾸었던 청년 사업가들의 미래엔 친일파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끌의 시대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3.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한명을 선정하자면 고갱이라는 캐릭터를 뽑고 싶습니다. 고갱은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무언가로부터의 '결핍', '외로움'이 강한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결핍, 외로움'으로부터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갔던 캐릭터였습니다.

4. 공연을 준비하는데 있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배우님들, 남궁호 선생님과 함께 한 캐릭터 창조 워크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들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런 관점에 공감하며 함께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친일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누군가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분명 돈에 매달리며 사는 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신방>은 친일파 청산을 외치지도, 정의와 옳고 그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쌓여가는 빚더미와 그 속의 인간을 통해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뿐입니다.

연극

낮은 칼바람

TEAM 돌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 2월 27일(일)(총 9회)
 공연시간 : 평일 17시30분 / 주말 15시(월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5분 | 티켓 : 전석 30,000원 | 작가 : 신안진 | 연출 : 정승현 | 무대 : 김수희 | 조명 : 이현승 | 음악 : 김정용 | 의상 : 강기정 | 음향 : 조연하 | 안무 : 양은숙 | 무대감독 : 구봉관 | 프로듀서 : 손신형 | 조연출 : 오탐광, 예유준 | 출연진 : 장재호, 김현, 장승연, 김슬기, 허진, 이승현, 조운, 박진호, 문호진

1930년 만주 하얼빈 북쪽 대흥안령 아래 외딴 객점.

객점 주인 '용막'과 건달 '중수' 그리고 '수염'은 한족 지주들과 어울려 며칠째 투전과 아편에 빠져 있다. 객점의 일꾼 '금석'은 용막의 눈을 피해 글 배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어떤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다. 비밀임무를 띄고있는 '아마모토' 중위와 '마에다' 하사, 돈으로 팔려 온 어린신부 '부근'과 '맹포수'들은 늑대들의 하울링과 칼바람을 따라 작은 객점으로 몰려오고, 인물들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낮은 칼바람>은 1930년 극한의 땅 '만주'로 내몰렸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이다. 질긴 생명력으로 그 시대를 살아낸 그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작품을 통해 그 시대, 그들의 삶을 극사실적으로 그려내 보자고 한다.



TEAM 돌

“작은 몸짓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었다.”

<TEAM 돌>은 세상의 '작은 몸짓'에 집중하고, 관객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던지고자 만든 창작집단이다. 2010년부터 함께 작업해오던 Staff-TEAM(연출/음악/무대/조명)이 중심이 되어, 2018년 가을 <TEAM 돌>을 창단하였다. 무대공간에 대한 탐구와 타 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보다 좋은 공연을 만들 고자 노력할 것이다.

낮은 칼바람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30년 만주 하얼빈 북쪽 대흥안령 아래 외딴 객점. 객점 주인 '용막'과 건달 '중수' 그리고 '수염'은 한쪽 지주들과 어울려 며칠째 투전과 아편에 빠져 있습니다. 객점의 일꾼 '금석'은 용막의 눈을 피해 글 배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어떤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비밀임무를 띄고있는 '아마모토' 중위와 '마에다' 하사는 예정된 안내인과 접선하기 위해 눈보라를 헤치며 객점으로 향하고, 돈으로 팔려 온 어린신부 부근은 맹포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용막의 객점으로 끌려옵니다. 늑대들의 하울링과 칼바람이 작은 객점에 밤을 불러오고, 인물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 1930년 만주, 익숙하지 않은 장소와 시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현재 정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과 질서에 따라 평화로운 듯 한 세상이지만, 세계 불경기로 인해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언제라도 묻고 뜯을 준비가 된 듯 보입니다. 경제대공황 다음해인 1930년 만주 또한 강대국들의 으르렁거림으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를 정글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1930년 만주로 내몰렸던 조선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 배경 조사에 있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낮은 칼바람>은 실제 작가의 외증조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작은 정보들을 가지고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건('나카무라 신타로')에서 모티브를 얻기도 했습니다.

* '나카무라 신타로' 사건

- 1931년 6월 27일, 관동군 소속 스파이였던 나카무라 신타로 대위가 농업기사로 위장하고 대흥안령 일대에

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봉천군벌에게 억류되어 살해당한 사건. 이를 두고 중일 간의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일본은 이 사건을 '만보산 사건' 과 함께 만주사변의 구실로 써먹었음

4. 당시 만주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셨나요?

1930년 한겨울 만주를 무대에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의 소리(바람)와 동물들의 소리(늑대, 소, 말), 생활속 소리(모닥불 소리)와 같은 공간의 소리들을 통한 생생한 감각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 훈련을 통해 생생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실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무대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낮은 칼바람>은 1930년 극한의 땅 '만주'로 내몰렸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질긴 생명력으로 그 시대를 살아낸 그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작품을 통해 그 시대, 그들의 삶을 극사실적으로 그려내 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정치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중에 누군가는 저항하고, 누군가는 순응하고, 또 누군가는 적응하며 그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판단은 잠시 잊고, '살아낸다'는 의미가 얼마나 숭고한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연극

콜 타임

호랑이기운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 2월 27일(일)
 공연시간 : 화~금 20시 / 토, 일 15시(월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70분 예정 | 티켓 : 35,000원 | 작/연출 : 이오진 | 출연 : 이주영, 장호인, 마두영 | 조연출 : 심지후 | 드라마터그 : 장지영 |
 무대디자인 : 장호 | 조명디자인 : 신동선 | 의상디자인 : EK | 사운드/영상디자인 : 목소 | 무대감독 : 마두영 | 액팅코칭 : 장재키 | 음
 직임 : 손지민 | 접근성 매니징 : 이래은 | 수어통역 공인수어통번역 : 잘함 | 한글자막 : 김태령 | 사진 : 이지수 | 그래픽디자인 : 정김소
 리 | 기획 : 나희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기어이 한 발 내 딛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품에는 2인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데뷔한지 10년 차 기혼자 여성 배우와, 갓 대학로에서 일을 시작하는 조연출입니다. 그들은 한국 근대 희곡에서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았으나 요절한 천재 극작가 이진오(1940-1991)의 <단이는 왜 20세기에 몸을 던졌나>를 공연 중입니다. 둘은 배우와 스태프가 공연장에 모이기로 약속한 시각인 '콜타임'보다 1시간 일찍 극장에 도착합니다. 둘은 다른 팀원들이 오기 전까지 둘만의 대화를 하며, 서로를 향해 열리는 다른 감각을 발견합니다. 작품은 회사원과 결혼한 연극배우와, 미래의 '배우' 혹은 '연출'이 되고 싶으나 길이 안 보이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한 시간 동안 전에 없던 시간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쓸 데 없어지는 1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날도 공연은 올라갑니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오늘의 공연이 올라갑니다.



호랑이기운

2017년 '페미니스트극작가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여자들이 나오는 희곡을 써서 무대에 올립니다.
 제 1회 [페미니즘 연극제] 개막작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장소특정형 포럼연극 <페미니즘 청소년극>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여성들의 기억을 꿰는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려고 백인 남자애를 죽이는 쌍둥이 아시안 여고생 이야기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를 고발하는 <청년부의 미친 헤인>을 제작 및 공연하였습니다.

콜타임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여름의 소극장, 콜타임보다 일찍 극장에 도착한 40대 배우와 20대 조연출이 천둥처럼 벼락처럼 몰아치는 다른 세계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2018년 연극계 미투 이후 많이 좋아졌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공연들은 이런 변화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에는 남성 중심의 서사들이 주요하고, 어느 연습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오래된 폭력을 자행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른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의 이야기도 쓰고 싶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로 인해 변화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3. 기존 연극과의 차별점이 있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엔 기어이 한 발 내딛고 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정의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사람들, 확신이 들지 않아 불안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 걸음 내딛는 별 거 없고 맛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4. 페미니즘 연극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로든 가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나 정치 경제, SF를 아우르고, 실패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작품은 존재 자체로 악(惡)으로 규정되는 시대에서, 그동안의 존재와 어떻게 결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버티고 앉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도 삶도.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개인의 삶에서 전에 없던 발견과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통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늘어나는 질문들 속에서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사회를 감내해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콜타임>을 통해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연극

화로

극단 인어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 2월 27일(일)
 공연시간 : 2.19(토) 19시 / 2.20(일) 16시 / 2.22~2.25(화~금) 20시 /
 2.26~2.27(토,일) 1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10분 | 티켓 : 전석 40,000원 | 작·연출 : 최원석 | 조연출 : 남동현, 표민지 | 기획·홍보 : 이정경, 박현욱 | 무대감독 : 최귀웅 | 안무 : 조하영 | 음악 : 이나영, 장희영 | 의상 : 김정향 | 무대 : 김충신 | 분장 : 박정미 | 출연진 : 장용철, 이유정, 윤국로, 이경민, 지근우, 차정호, 최보희, 백효성, 이음, 김애린, 김요영, 이창현, 이규빈, 신대철, 조안나

사랑아, 입맞춰라! 죽음아, 타올라라!

연극 <화로>는 격정낭만극이다. '사랑의 쟁취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중년들의 분투'가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년의 끝물에 이르러 폭풍처럼 밀어닥친 사랑의 설레임과 흥분, 유산분배 때문에 재혼을 반대하는 가족들, 전 애인의 몫쓸 배신으로 인한 좌절,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유포시킨 전 애인에 대한 잔혹한 복수, 실연의 파탄으로 인해 들이닥친 죽음 등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질풍노도 청년기의 모습과 같고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롭게 출현하는 젊은 노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열정과 활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중년세대를 그려냄과 동시에 사랑의 완성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과 의연히 마주하는 중년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극단 인어

2012년 창단 이후 극단 인어는 연극 <변태>, <불멸의 여자>, <극장 속의 인생>, <인어를 사랑하다>, <빌미>, <화로> 등 일련의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을 통하여 현시대를 지배하는 자본 및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형상화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또한 사실주의 연극 형식의 현대적 수용을 완성하기 위해 생략과 압축을 바탕으로 한 비사실적 무대와 극사실적 연기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극사실적 연기라 함은 인간의 행동을 재현하는데 있어 그럴 듯한 통속적 감정과 감상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태도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방식을 통해 극단 인어는 무대장식에 묻혀 점차 왜소해져가는 배우의 존재를 회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온전히 배우가 구사하는 말의 힘을 주축 삼아 관객들과 동시대의 문제점을 공유할 것이다.

화 로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걱정멜로드라마! '사랑의 쟁취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중년들의 분투'가 바로 이 작품의 특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끝물에 이르러 첫사랑을 다시 만난 남녀가 불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국 동반자 살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2.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한자에 익숙한 중년 세대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3. 최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데 이에 대한 연출자의 의도는?

남녀의 사랑은 예술의 영원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내에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25%이상을 1970년

생 이전의 중년세대가 점유할 것이란 사실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한국은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년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존엄사는 이미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윤리로 인해 존엄사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면 드라마예술이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4.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랑의 본질은 책임을 완수하는 것!

'사랑과 죽음'이란 근본적 소재로 인간의 치열한 열정과 숭고함을 다루는 연극 <화로>를 통해 불가해한 사랑의 본질과 짧게나마라도 행복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이 연극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신작의 발견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주) 다아트



일시 : 2022년 1월 8일(토) ~ 1월 30일(일)

공연시간 : 평일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4시, 18시(26일 마티네 15시 추가)

장소 : CJ Azit 대학로

러닝타임 : 100분 | 티켓 : 인터파크 | 프로듀서 : 정민경 | 극작 : 강보영 | 작곡 : 이주희 | 연출 : 이석준 | 안무 : 이재철
 편곡/음악감독 : 이주원 | 출연진 : 이정열, 정의욱, 이아진, 박슬기, 정현우, 홍준기, 박혜원

열아홉살 아빠와 함께 하는 과거 여행

동화작가지망생 주영은 어린 시절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특별한 동화를 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항상 가로막는다. 어느 날 아빠의 암 소식에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나락으로 추락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아빠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아빠와 보내는 병원생활은 마치 이상한 나라처럼 느껴지고 시계토끼와 도도새, 체셔고양이가 나타나 주영이에게 말을 건다. 암이 뇌로 전이 되어 자신을 열아홉살로 착각하는 아빠와 함께 과거를 여행하며 주영이는 자신이 그동안 왜 동화를 쓸 수 없었는지 알게 되는데..



(주) 다아트

2020년도에 설립된 (주)다아트는 “경험하여 아는 예술”이란 모토로 일상에서 경험하여 알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예술기업입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다아트는 순수 창작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예술인 네트워킹,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공연예술영역의 확장과 혁신을 도모하여 예술산업 발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빠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화작가 지망생 주영은 어린 시절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특별한 동화를 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항상 가로막습니다. 어느 날 아빠의 암소식에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추락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아빠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아빠와 보내는 병원생활은 마치 이상한 나라처럼 느껴지고 시계도끼와 도도새, 체서고양이가 나타나 주영이에게 말을 걸어요. 암이 뇌로 전이 되어 자신을 열아홉살로 착각하는 아빠와 함께 과거를 여행하며 자신이 왜 그동안 특별한 동화를 못 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작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모든 세대가 각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동화입니다. 어른이 앨리스를 보게 되면 캐릭터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많아요. 이 캐릭터들은 주인공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인공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네요. 그리고 주인공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실제 삶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일지도 모르겠어요.

3. 작품을 준비하며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작가) 이 작품을 시작 했을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 공교롭게도 첫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동안 작곡가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때 저의 먼저 된 경험이 작곡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기존 뮤지컬과의 차이점이나, 편곡 기법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작곡가) 먼저는 주영이가 꿈꾸는 동화적 판타지, 특히 각 캐릭터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음악적으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삼의 과거 시대에 들었던 70년대 음악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현대 감성에 맞게 편곡하였습니다. 드라마적 흐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악기 구성에 있어서 쇼케이스 때 사용된 관악기가 현악기로 대체되어, 더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PD)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명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을 충실히 지나고 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우리 진짜 삶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 피해왔던 본질적 이야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질문이, 누군가에겐 이해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해체가 만연한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일수도 있는 병삼, 당신의 딸일수도 있는 주영이의 이야기가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작뮤지컬

#해시태그

(주)바움커뮤니케이션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 2월 20일(일)

공연시간 :

장소 : 아트원씨어터 2관

러닝타임 : | 티켓 : | 프로듀서 : 방산 | 제작피디 : 정현섭 | 작가 : 김여준 | 연출 : 김민정 | 작곡 : 문소현 | 음악감독 : 신요한 | 무대감독 : 이재은 | 안무 : 정도영 | 무대 : 이은석 | 조명 : 정구홍 | 영상 : 이수경 | 의상 : 박소영 | 소품 : 김린아 | 분장 : 장혜진 | 기획 홍보 : 마크923 | 출연진 : 홍승안, 윤승우, 전예지, 류인아, 옥경민, 헤빈, 이봉준, 심수영, 조현우, 윤은오

성인과 미성년, 현실과 가상 경계에서
자신을 찾아가려는 19살들의 이야기

수능을 앞둔 인재동의 한 고등학교 3학년 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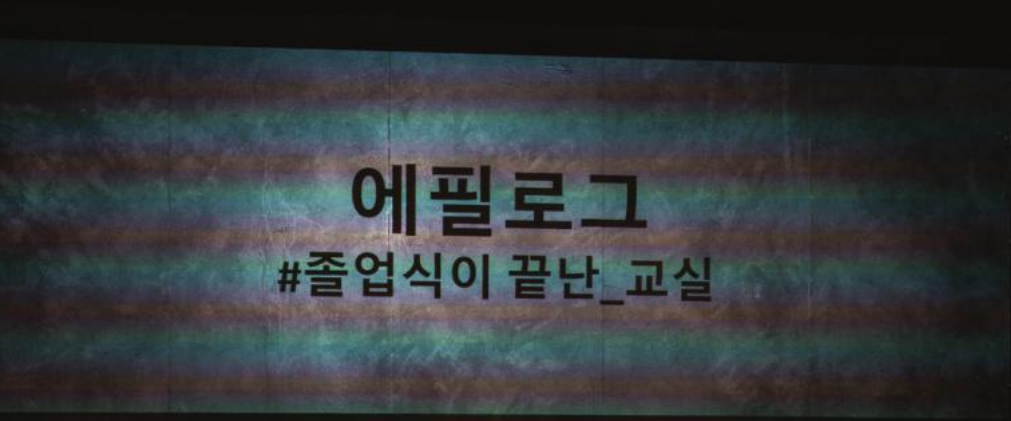
반 1등 수진은 '인사이드'에서 언니 수정의 흉내를 내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찬영은 염탐하던 친구 지훈의 인사이드에서 수진의 계정을 발견하고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다. BL 만화 작가 현아는 게이 데이팅앱에 업로드 된 찬영의 사진을 발견하고, 승우가 찬영의 사진을 업로드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다. 궁지에 몰린 승우는 자신이 아는 아이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지훈은 수정으로 알려진 계정의 주인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해시태그는 고3, SNS, 입시, 청소년 등의 키워드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발견되는 가까운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전체 넘버를 낱설지 않은 팝 장르로 구성하면서 장르의 트렌디하고 다채로운 사운드로 작품의 동시대성을 구현하였다.



㈜바움커뮤니케이션

본 공연 주관단체인 ㈜바움커뮤니케이션은 2005년 12월 설립된 미디어 네트워크 기반의 홍보회사입니다. 기업 홍보, 브랜드 및 마케팅 PR, CS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사 보유의 전시 공간 바움아트갤러리와 출판사 <빛과 숲>, 바움목관5중주를 설립 및 창단하여 문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을 도모합니다.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는 수능을 앞둔 고3 아이들이 '인사이드'라는 SNS에서 이중생활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관계와 비밀들을 맞닥뜨리면서 미성년과 성인의 경계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발견하고, 또 버려나가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2. 가장 오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주변에 존재하는 가까운 일상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흔히 '이야기'가 되기엔 소소하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조각들을 다시금 바라보고 생각할 기회를 나눠보고자 하였습니다.

3.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얼마만큼의 현실을 담아내야할지, 어디까지 끌고 나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 극적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현실을 보며, 담고자 하는 현실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을 인물들이 딛고 일어서게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4. 기존 뮤지컬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오늘날의 대중적인 팝 장르로 넘버를 구성하였습니다. 인물들의 심리와 전개를 노래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탐구하고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사운드로 음악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발화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박탈감이나 두려움, 괴로움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은 삶을 버려나가기에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와 이슬함 속에서 또다시-새로이 버려나갈 아이들을 통해 관객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작품이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해시태그>라는 작품이 풍부한 콘텐츠 속에서 그만의 의미로 시대, 관객과 함께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작뮤지컬

PIP - 위대한 유산

파파프로덕션



일시 : 2022년 4월 1일(금) ~ 4월 17일(목)

공연시간 : 미확정

장소 : 대학로 TOM 1관

러닝타임 : 120분 | 티켓 : 66,000원 / 44,000원 | 작가 : 윤희경 | 작곡 : 정유진 | 연출 : 성종완 | 음악감독 : 이경화 | 안무 : 최인숙
무대디자인 : 신종환 | 조명디자인 : 장원섭 | 음향디자인 : 권지희 | 의상디자인 : 안현주 | 분장 : 채송화 | 출연진 : 미정

소설 위대한 유산으로 그려내는 창작 뮤지컬

가난하고 순박한 시골 소년 핏의 우연 속 드라마틱한 성장 과정과 그가 사랑하는 에스텔라를 통해 '위대한 유산'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통찰을 그려내고 있다. 빅토리아시대.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가난한 고아 소년 핏이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이다.

예기치 않은 행운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고 방향한 끝에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핏의 이야기를 통해 시공을 초월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다.



파파프로덕션

파파프로덕션은 1996년 설립하여 기존 공연계의 틀을 탈피하여 프로덕션시스템을 선도하였으며, 공연 하는 즐거움, 공연 보는 즐거움을 공유와 공감을 통해 함께 하고자 만들어진 제작사입니다.

PIP - 위대한 유산



1.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파파프로덕션의 이현규 대표님과 함께 작품 개발 논의를 하며 여러 소재들을 검토하던 중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핏이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고아소년 핏은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만 예상과 달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첫사랑 에스텔라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방향의 과정을 통해, 핏은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핏의 서툰고 아픈 성장기가 힘겨운 현실과 분투 중인 관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대본 작업에 임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고전 원작소설이 가진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뮤지컬과 원작소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 과 뮤지컬 <PIP - 위대한 유산>의 차이점이 있나요?

소설 <위대한 유산>이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신사계층을 풍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뮤지컬 <PIP- 위대한 유산>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핏의 성장 드라마에 보다 집중했습니다. 또한 핏과 각 인물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는지, 인물 간의 관계성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은 사회를 그리고 있고, 뮤지컬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고전 소설을 통해 오늘날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00여년 전에 쓰인 작품임에도 작가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족의 의미, 자본의 가치와 신분 상승



승과 몰락, 인생의 아이러니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에 대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4. 작품을 보고 음악을 작곡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분위기는 무엇인가요?

첫 씬을 보고 가사에서 멜로디가 절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배경이었는데 등대, 나룻배, 안개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니 잔잔한 물결이 절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사가 흘러가듯 음악도 드라마와 같이 호흡하며 마치 하나인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극 전반에 흐르는 인물들의 외롭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차분하면서도 뜨거운 감정들이 뮤지컬 넘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클래식한 선율을 기반으로한 서정적이고도 극적인 느낌의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는 무엇인가요?

첫넘버 '폐하'와 핏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나의 우주'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넘버에 주인공의 공허함과 열정, 외로움과 갈망 같은 여러 복합된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음악적 분위기에 신경을 썼고 이 첫 넘버를 통해 작품의 음악적 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객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우주'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주인공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한번 들으면 자꾸 듣고 싶어지고, 누구든,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애타는 마음들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서정성 짙은 곡으로 썼기에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신작의 발견



무용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모빌리티

멜랑콜리댄스컴퍼니



일시 : 2022년 1월 7일(금) ~ 1월 8일(토)

공연시간 : 금 20시, 토 16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 티켓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아르코예술극장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연출 : 정철인 | 기획 홍보 : 김민영 | 무대감독 : 광용민 | 조명감독 : 김병구 | 안무 : 정철인 | 작곡 : 최태현 | 음악 : 김경남 | 사진 : 임정은 | 영상송출 : 임정은 | 영상기록 : 더존크리에이티브 | 포스터 : 전성재 | 리플렛 : 이수현 | 의상 : 공세현, 윤도혜 | 특별도움 : 임현준 | 출연진 : 김윤현, 류지수, 문경재, 이현섭, 정민수, 정철인, 주영상 | 스텝 : 권미진 | 후원 : (주)쓰카

포스트 휴먼 시대, 모빌리티를 이야기 하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인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능력을 지닌 존재인지 정의하고자 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존재해왔는데 이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는 인간의 몸과 모빌리티 개념을 긴밀하게 연결 지어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상호 진화에 기초한 작품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융합과 연결, 이동과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바라보는데 넘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양한 창작기법을 통해 포스트휴먼의 인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멜랑콜리댄스컴퍼니

2016년 정철인의 안무가에 의해 창단된 멜랑콜리댄스컴퍼니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며 다양한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간다. 작품 <비행>, <0g>, <초인>, <위버맨쉬>, <당신의 징후> 등 인간의 삶을 주제로 속도와 리듬감, 무게감을 통한 변주를 인간사와 현상에 대한 통찰로 메시지를 담아낸다. <멜랑콜리댄스컴퍼니>는 현시대의 멜랑콜리한 감정을 고스란히 수용하며 예술을 통해 신체 언어의 확장,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와 이상으로의 도달을 보여주고자 한다.

모빌리티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품 <모빌리티>는 인간의 삶에서 과거에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되는 시대에 모빌리티의 개념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오브제를 움직임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2. 스케이트보드와 무용의 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롱보드(스케이트보드)는 작품에서 놀이와 스포츠의 형태에서 벗어나 인간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확장된 다리를 의미합니다. 장면에서 보드는 하나의 의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뗏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이동 수단을 작품 속 롱보드를 통해 물리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구와 신체의 조화로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3. 기존 대중들이 생각하는 무용 공연과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공연의 특징은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도구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극대화하며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프로그램의 최태현 씨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멜랑콜리댄스컴퍼니만의ダイナミック한 신체 움직임과 광프로그램만의 실험적이면서도 강렬한 밴드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것 또한 저희만의 차별점입니다.

4. 안무 제작 시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면?

제작 과정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직접 특수 의상을 제작해 본 것입니다.

작품 후반부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 혹은 도깨비와 같은 형상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완성하여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직접 제작한 특수 의상을 연습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조금씩 생겨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포스트휴먼시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빌리티(이동 수단)가 얼마만큼 이 작품을 통해 변형되고 다양하게 해석되었는지 여러 장면 속 이미지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관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전에 해보지 않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싶었고 동시에 많은 대중들이 즐겁게 감상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니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면 이번 작품 <모빌리티>를 댄스필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극장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출들을 하였는데요. 무대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고, 이후 필름 버전을 함께 보신다면 하나의 작품을 두 배로 새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굿 (Exorcism)_사도

댄스씨어터 창



일시 : 2022년 1월 14일(금) ~ 1월 15일(토)

공연시간 : 금 20시 / 토 16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안무 : 김남진 | 연출 : 이희자 | 조안무 : 이상훈 | 음악감독 : 박우재 | 라이브연주 : 박우재, 리마이더스 (김민영, 박지현) | 조명디자인 : 류백희 | 무대감독 : 전흥기 | 무대제작 : 이종영 | 의상디자인 : 민천홍 | 음향감독 : 이동준 | 사진 : 옥상훈 | 플라잉 기술 지원 : 차정호 | 소품제작 : 이지형 | 홍보물 디자인 : 양진선, 조한샘 | 기획 : 김세련, 한지원, 염태선 | 홍보 : 함유진, 조효진, 양혜민 | 출연 : 김주영, 이기돈, 안연주, 이상훈, 이준상, 정지훈, 박수연, 한지향, 조민상, 김지혜

컨템포러리 서커스와 현대무용의 조화로 한국적 색채가 강한 움직임의 새로운 장르의 탄생!

작품 <굿(Exorcism)_사도>는 수미상관 구조와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힌 뒤 벌어지는 생각과 사물, 아버지에 대한 분노, 보이지 않는 혼령들의 검무, 현대 서커스와 무용과의 만남, 거울을 통해 보여지는 또 다른 나의 모습 등을 무용수 5명, 연극배우 2명, 컨템포러리 서커스 퍼포머 3명 그리고 거문고, 가야금 라이브 연주자 3명이 시각적, 청각적 효과와 함께 무용, 연극, 서커스, 음악의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구성한다. 이는 국내 무용계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융복합 문화 예술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며 겪게 되는 가족 간의 사랑,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비정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댄스씨어터 창

Dance Theater CHANG은 2006년 6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의 현대무용이 이제까지 이어오던 추상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좀 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안무 작업을 추구하고,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진정한 연극적 무용의 개념으로 관객과 만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굿 (Exorcism)-사도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굿-사도>는 안타깝게도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도세자가 꾸는 악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줄), 그리고 검무를 베이스로 한 혼령들의 춤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은 뒤주속 사도세자의 공포와 환각 등이 이미지화 되어있으며, 3장은 현대에 자행되고 있는 또 다른 학대의 모습들, 4장은 사도세자와 정인이라는 만남, 5장은 사각의 공간 속 사도세자의 죽음을 그려봤습니다. 작품은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영조와 오늘날의 비정한 계부의 역할을 맡은 배우 이기돈씨의 1인 다역으로 관객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것입니다.

2. 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매우 좋아하고 영화를 통해 보고 느낀 것들, 이미지들을 작품에 많이 응용하는 편입니다. <굿-사도>는 송강호, 유아인씨가 주연한 영화 <사도>를 보고 느낀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정인이라는 아픈 이야기와 오버랩되며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적 비극 속의 주인공 사도세자가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사도세자의 이야기와 서커스의 퍼포머를 결합한 이유가 있나요?

사도세자 역을 하는 조민상씨는 무용 전공자가 아니고 에어리얼 스트랩이란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하는 퍼포머이자 연기전공자입니다. 전 무용안무자이긴 하지만

작품에는 꼭 무용수만을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조민상씨는 사도세자의 복잡하고 극적인 내면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여 주연으로 발탁하였고 이러한 캐스팅이 현대무용과 서커스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안무 제작 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다수의 인원들의 스케줄을 다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습을 시작하면서 성탄절, 새해 첫날까지 없었던 연습까지도 하자며 출연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조율하여 연습을 했습니다. 전 이런 팀 처음 봤어요. 스스로 연말 휴가까지 반납하는 열정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공연을 해야 할 작품이 부득이하게 연기 되면서 두 개의 신작을 준비하게 되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사도세자나 정인이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사실이죠. 아동학대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용은 참 재미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용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이제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술이 무용이다 라고 작품을 통하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무용

28조톤

초록소



일시 : 2022년 1월 15일(토) ~ 1월 16일(일)

공연시간 : 토 20시 / 일 16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티켓 : 전석 30,000원 | 연출/컨셉 : 정성택 | 안무 : 류진욱 | 협력/연출 : 양정현 | 조연출 : 윤예은 | 기획/행정 : 배수진 | 드라마티그 : 조성아 | 사운드디자인 장성건 | 음향감독 : 이현석 | 음향오퍼레이터 : 윤예은 | 무대디자인 : 김태환 | 무대조감독 : 한진규 | 조명디자인 : 이혜지 | 조명오퍼레이터 : 김상현 | 사진기록 : 박김형준 | 영상기록 : 현석현 | 홍보물디자인 및 제작 : 정소미 | 코디네이터 : 권혁재 | 출연 : 고동훈, 김세정, 김선혁, 김영은, 박영성, 양설희, 이정민 | 자문 : 마린보이

사라져 버린 얼음에 대한 이야기

'28조톤'은 빙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공연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은 일상의 무의식과 기후변화에 대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목적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빙하 파편에 빳대어 표현했으며, 하얀 냉장고의 시각적인 배치와 활용으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 또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빙하가 녹음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금자리인 집이 잠겨 지붕만 남아버린 모습에서 그동안의 무의식과 무관심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장면을 표현함으로 미래의 기후난민의 모습을 투영했다.



초록소

'초록소'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전문가양성과정(거리예술넥스트) 수료 후, 예술가 정성택에 의해 창단되었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예술로 동시대 재활을 목적으로 둔 실험예술 연구단체이다.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협업하여 동시대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예술로 접근하여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장르적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표현, 전달을 통해 장르의 범위와 가능성 확장에 대한 컨템포러리 한 창작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28조톤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8조톤>은 1994년 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져 버린 얼음(빙하, 빙봉 등)총 '28조 톤'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져 있는데, Part1은 일상의 무의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Part2에서는 그로 인해 녹고 깨어지는 빙하와 우리의 일상을 다루며, Part3에서는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되어 벙랑 끝에 내몰린 우리의 미래를 기후난민의 모습을 투영한 파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 빙하를 무용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녹고, 부서지는 것! 공연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끊임 없이 녹고 부서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녹고 부서지는 빙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용수의 신체와 공연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의 다양한 배치와 활용들이 어떤 지점에서 녹고, 부서지는 빙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보는 것도 공연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 (숲, 쓰레기 등)이 있는데 빙하로 잠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구온난화가 수반한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빙하가 녹고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상징들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가장 와 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숲과 쓰레기 관련해서도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숲과 쓰레기는 우리 주변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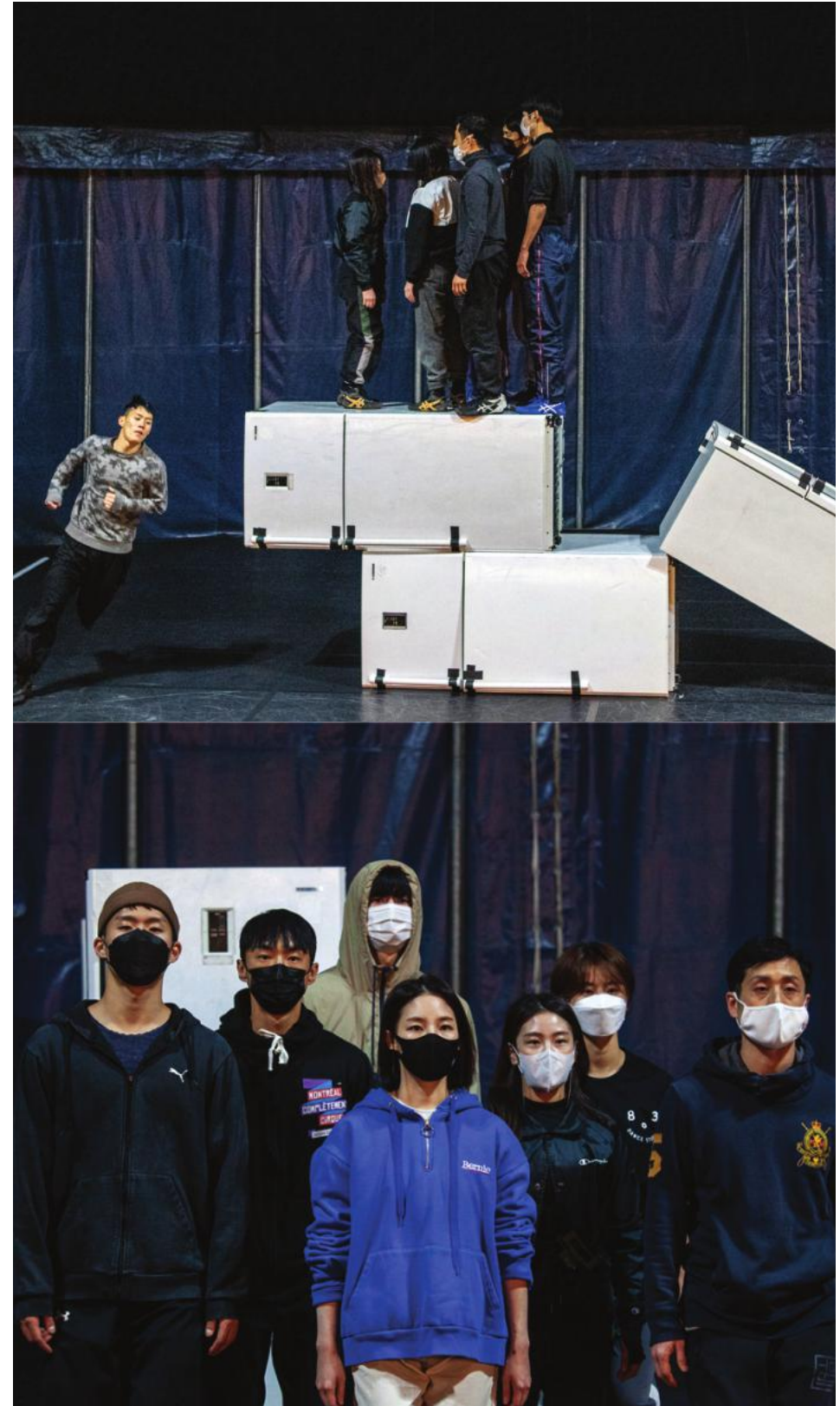
지만 빙하는 상상 속의 거대함으로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상 속의 거대함이 우리 일상의 사소한 습관적 무의식과 무관심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예술가인 저를 움직였습니다.

4. 안무 제작 시 생각하는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연출이라, 작품제작에 대해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단체 작업 특성상 오브제들이 항상 활용되다보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이동과 보관의 이슈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연습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야외 서커스텐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연습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내준 안무가님과 무용수분들 그리고 스텝 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공연을 보러와 주셨다면 평소 기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공연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주시기 보다는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맡겨보는 것이 본 공연을 메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쉬지 않고 공연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녹고 부서지며 무대 위를 정처 없이 떠돌 예정입니다. 관람 후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하세요!



무용

조 동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목적 없고 조금하게, 끊임없이 움직인다. 톱니바퀴처럼 수동적으로 일한다. 참는다.

변화가 두려워 쳇바퀴 속 급박하게 달려가는 현시점의 이야기이며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공장
의 톱니처럼 알맞은 크기, 모양, 속도에 맞추어 움직인다.

안무자는 반복되는 삶 속 개인이 느끼는 매너리즘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한 번쯤 느
낀 감정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작품 <조동>을 통해 관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 2022년 2월 5일(토) ~ 2월 6일(일)
공연시간 : 토 19시 / 일 16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연출,안무 : 김성훈 | 출연 : 안남근, 천종원, 임종경, 김보람, 정록이, 김수인,
이경진, 이지윤, 송승욱, 이창민, 최승민 | 무대감독 : 결작 이도엽 | 조명감독 : 김정화 | 음악 : 강태원 | 영상 : 황찬용 | 의상 : 신호영 |
무대, 소품 : 조일경 | 드라마터그 : 최승민 | 컨셉사진 : 박귀섭 | 포스터디자인 : 윤혜원 | 기획 : 국지수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의 안무가 김성훈은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를 즐기며, 가장 보편화 된 일상 움직임을 이용한 무대 연출법으로 일반 관객들의 이해도를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무가이다. 또한 무용수 출신 안무가이지만, 자신의 움직임을 강요하기보다는 무용수 각자 특유의 움직임을 존중하고, 주제에 따르는 일반인들의 일상 움직임을 리서치 한 후 이 둘의 현상을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감각들을 서술하여 하나의 이미지 장면들을 구성하는 안무를 한다. 이는 안무가 김성훈의 안무 철학이 인간 본연의 움직임을 무대화하는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훈의 작품은 매 작품마다 모방이 없고, 새로운 작품 스타일로 휴머니스트적 주제들이 다소 모호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방지해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안무 방향으로 관객의 이해도를 높여 작품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 동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삶이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더 그렇고, 또 다른 차원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 또한 이처럼 수없이 반복되고, 고뇌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 속에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파괴되고, 재구축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이 아닌 내가 살아 있는 이 순간임을 독백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2.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힘이라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번 작품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그것을 무용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제가 느꼈을 때의 상황들을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그 경계선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내면적 감정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연구했으며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무용수의 움직임을 관객들이 봤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설적인 표현과 추상적 움직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4. 기존 무용공연들과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의 작업에서의 차별 포인트는 한 가지 색에서 나올 수 있는 이중적 해석들을 여러 가지 질감의 움직임으로 작품의 메시지에 맞게 배열한 것입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공감 받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받고 치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정들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뻘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양한 장면과 움직임으로 이뤄진 해프닝들이 한 가지 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한합니다. 이런 무한한 메시지들을 개인의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새롭게 파생되는 것 자체가 이번 공연이 주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느끼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용

senseless violence

(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유장일 발레단



일시 : 2022년 2월 5일(토) ~ 2월 6일(일)

공연시간 : 토 19시 / 일 16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이해 할 수 없는 폭력으로부터
위로를 전달합니다

‘senseless violence’ (부제 :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본 작품은 영화 <조커>에서 표현된 1970년대 미국 뉴욕 맨하탄의 할렘가인 브롱크스라는 지역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양한 폭력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속 움직인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자의든 타의든 벗어날 수 없는 현재를 바라본다.

이 작품의 의도는 현재 사회의 부조리하고 어두운 면을 돌아보는 반성과 치유의 기회로 무용수들의 진중한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장일 발레단

유장일 발레단은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하는 컨템포러리 전문 무용단체이다. 컨템포러리 발레의 치밀함과 웅장함을 겸비한 단체로서 서울무용제,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등을 통하여 인물들의 치밀한 분석에서 나오는 작가 정신에서 나오는 안무력, 탄탄한 춤의 조화, 적절한 프레임의 통하여 최고의 프로젝트 발레단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단의 극찬이 있었다. 늘 새로운 춤 개발과 안무 시도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안무를 하는 단체이며 특히 공연계 최초의 5.1채널 작곡을 통한 음향 사운드는 유장일 발레단만이 가지고 있는 큰 성과이다.

러닝타임 : 총 60분 | 티켓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안무 및 연출 : 유장일 | 작가 : 김수진 | 기획 홍보 : 컬처앤유 황서빈 |

무대감독 : 박정범 | 사운드 : 홍웅 | 의상 : 진영진 | 출연진 : 원진호, 성창용, 김민정, 이승현, 이재우, 용기, 엄진솔

senseless violence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senseless violence(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산물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신체적인 폭력을 무용수들에게 전이하여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발레 작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자의든 타의든 벗어날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부조리하고 어두운 면을 돌아보는 반성과 치유의 기회로 무용수들의 진중한 움직임 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1970년대의 브롱크스 지역, 낯선 지역과 배경인데 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970년대의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맨하탄의 할렘가인 브롱크스는 영화 '조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하우스 푸어와 빈부격차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절망 속에서 시민들은 무법천지의 폭도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오늘날 부동산 폭등, 미디어 폭력 등 여러 폭력들로 노출되어버린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3. 당시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컨템포러리 발레가 현실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안무가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처음 진행해보는 공연이라 이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는 1970년대의 브롱크스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물과 인물 성격을 구체화하는 것과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4.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소통과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수예술 무용은 가장 기본적인 몸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혼란한 시대에 관객들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senseless violence'라는 단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뜻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겁한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 뉴스나 TV, 인터넷 매체에서 인기 힘든 폭력에 관한 뉴스들로 읽기조차 힘든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폭력,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폭력으로 상처받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혼란한 사회에서 안무가는 본 작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유장일 발레단의 'senseless violence(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공연을 통하여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용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

김유미



일시 : 2022년 2월 25일(금) ~ 2월 26일(토)

공연시간 : 금 19시30분 / 토 16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 티켓 : 전석 3만원 | 연출 : 한명옥 | 작가 : 석한남 | 안무 : 김유미 | 사운드 : 양태석 | 무대감독 : 김진우 | 조명감독 : 김정화 | 무대디자인 : 신나래 | 의상 : 라인플렌트, 씨뚜 진영진 | 기획·홍보 : WD | 기획 : 한동희 | 분장 : 최유진 | 출연진 : 정명훈, 김유미, 김진아, 차다솜, 김하나, 박철순, 손무겸, 이주애, 한지원, 허미소, 장지수, 김호연, 정예영, 권소정, 최해인, 최승은, 김서연, 오프름, 전해정, 김수지, 지혜진, 황민하, 손지오, 이윤아

한국 전통미학의 정체와
만나는 시간!

매”는 나무에 근거 하고, “每”자는 인인과 모母로 이루어져 사람 가운데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한다. 정조 때 널리 알려진 학자 형암 이덕무는 벌이 꿀을 만들고, 그 밀랍을 다시 손으로 빚어 만든 매화를 ‘윤회매’라고 하였다. 전통예술과 한국의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움직임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무형을 유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관객의 몰입을 유도 한다. 영상의 시각화하고 나무와 쇠가 부딪치며 나오는 순간의 향연이 청각각화 되어 춤사위로 쏟아져 나오는 감성이 관객과 몰아일체를 이룬 공감각화 된 공연 무대를 연출한다.



김유미

안무가 김유미는 예술의 공(共)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공연예술콘텐츠를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춰 2016년~2019년까지 문화파출소 군포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봉사대상 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하며 ‘함께 만드는 따뜻한 즐거움’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수행 하였다. 이번 올해의 신작 공연으로 자작 무브먼트 단체를 만들어 움직임에 집중한 동시대적인 언어로 한국춤을 세밀하게 해체하고, 다양하게 조합하여 유희와 철학을 내포한 상상을 실현해 내는 유연한 단체이다.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비들의 각별한 애호를 받은 매화는 곧 선비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화의 어원은 “매”는 나무에 근거하고, “每”자는 인사와 모뎀으로 이루어져 사람 가운데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합니다. 유교에서 관념이

나 덕성(德性)을 화훼로 상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도 덕성이 심미성으로 전환되고 심미성이 도덕성으로 전환된다는 미선일치(美善一致)의 관점을 보입니다. 형암 이덕무의 『유희매십전』을 소재로 전통예술과 한국의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움직임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김시습의 탐매(探梅)도에서 시작 됩니다. 정월사이(양력 2월에서 3월초)에 걸쳐 산야를 헤매며, 매화가 피었는지 찾아다니는 행각을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얽혀 있는 김시습 아래 뿌리처럼 엉겨 붙은 잔해의 무용수는 생명의 얇은 숨으로 태고의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얀 신기루. 그것이 유희매를 상징 합니다. 덩어리가 마르고 숨과 영혼의 춤이 이어져 싹이 돌아나는 움직임의 군무는 커다란 나무가 인간의 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매도가 상징하는 세계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번갈아 유지하는 고요는 유희매로 피어나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2. 유희매십전이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실학자 형암 이덕무(1741~1793)의 『유희매십전』은 벌이 꿀을 만들고, 그 밀랍을 다시 손으로 빚어 매화를 만들어 꽃에서 나온 밀랍이 꽃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불교의 유희설을 떠올리며 유희매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고고한 매화의 자태를 각별히 애호한 선비들은 꽃을 연중 보기 위해 ‘조화(造花) 매화’ 즉 유희매를 창안하였고, 유희매 제작의 모든 과정이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수록돼 있는 것이 유희매십전입니다. 유희매십전은 연암그룹의 지식 편집과 문인 유희로서의 면모를 고루 지니면서 창작을 견인할 수 있었던 모범적 지식 편집 사례라는 점에서 단연 특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전통 유희 사상과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융합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4차 산업의 증폭은 되레 손으로 직접 하는 무형의 유산을, 사람을 그리움으로 남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간극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새로운 전통공연예술 콘텐츠를 무대 위에 실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공연예술계에 깊이 관여 되고 있는 3D, VR, AR, 등 다양한 융 복합 시도는 한국창작무용의 미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재하는 기술을 실험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 생각하고, 무형을 유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방법론적으로 기술진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유희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현할 때, 수단은 몸으로 전달해야 하며, 영상의 시각화하는 이미지 조화를 목적으로 두며, 나무와 쇠가 부딪치며 나오는 순간의 향연이 청각각화 되어 춤사위로 쏟아져 나오는 감성이 주가 되는 공연, 관객과 몰아일체를 이룬 공감각화 된 공연 무대를 연출하는 것으로 미디어의 강약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4. 이번 공연을 통해 앞으로 어떤 공연들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와 무형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상이점과 그로 인한 충돌에 관해 과감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로, 보다 큰 프레임 안으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담아 전통예술 장르의 테두리를 넓혀 더 많은 관객의 생각이 공연 안으로 스며들게 하고자 합니다. 능동형 참여를 독려하고, 무대에 펼쳐지는 춤을 통해 현대적 기술을 섬세하게 접목한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구상을 실현 하는 공연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꽃은 번잡하지 않고, 나무가 오래되어 구불구불하고, 줄기와 가지는 아위었으며, 활짝 피기 보다는 봉우리가 맺힌, 기이하게 구부러지고 뒤틀러지기도 한 세월의 강인함을 견뎌내는 매화를 사귀(四貴)로 정하여 관상의 요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는 시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고고한 힘을 지닌 귀한 매화로 피어나기 위함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계를 벗어나 최고의 선을 갈망하는 인고의 저력, 한국 전통 미학의 정체를 만나 세상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작의 발견



전통
예술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정가악회 콘서트 탈춤은 탈춤

사단법인 정가악회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 1월 29일(토)

공연시간 : 금 20시 / 토 16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 티켓 : 30,000원 | 연출 : 천재현 | 무대디자인 : 손지희 | 음향디자인 : 김병국 | 조명디자인 : 송영건 | 영상디자인 : 임리원 | 무대감독 : 박민호

탈춤은 탈춤이다.

탈춤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탈춤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탈춤이다. 음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춤, 추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춤의 신명과 쾌감을 관객에게 공유한다. 더불어 다이나믹한 영상 투사 및 무대디자인의 요소를 통해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무대를 완성한다.



사단법인 정가악회

2000년에 창단한 (사)정가악회는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대표 레퍼토리-다큐멘터리 콘서트 <아리랑, 삶의 노래> 시리즈, <평룡[平弄]: 그 평안한 떨림> 등으로 대중과 만나며, 축제 <국악대학전>과 예술가 및 기획자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외 문화예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감과 동시에 공연팀 및 기획사를 자체 제작 및 런칭하여 공연과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어가며 운영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다.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반, 말뚝이, 승무, 문둥이, 비비와 사자, 미얄 등의 춤이 춤꾼들에 의해 추어집니다. 정가악회는 각각의 춤을 살피고 음악을 만듭니다. 장단, 리듬, 비트, 사운드, 멜로디... 들이 반복되고 쌓이고 겹치고 흩어지고 비워지고 틀어져 춤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탈춤을 추었던 음악이 아닙니다. 춤꾼들도 춤의 음악을 듣고 반복하고 틀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봅니다. 음악도 춤도 옛 것은 아닌데 새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살피니 새삼 새로운 것이 됩니다.

본 공연은 고성오광대를 기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성오광대의 춤을 중심으로 탈춤을 바라봐도 탈춤이라는 전체를 바라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연의 타이틀을 고성오광대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문둥이와 비비는 고성오광대만의 독특한 소재이지만 전

체적인 맥락에서는 한반도에서 추어지는 여타의 탈춤이 갖고 있는 요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자도 등장하고 다른 탈춤의 매력적인 포인트들도 가져옵니다. 각각의 탈춤이 갖는 다름에 주목하지 않고 탈춤이 갖는 넓고 보편적인 특징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탈춤은 탈춤입니다. 탈춤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다르지만 탈춤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탈춤입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정가악회와 탈꾼들이 생각하는 탈춤을 한바탕 신명나게 추려고 합니다.

2. 탈춤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탈춤을 정의하는 말들을 보면 탈을 쓰고 춤을 추며하는 연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탈춤이라는 말보다는 가면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극이 그렇듯 탈춤은 종합예술입니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연기를 합니다. 함경도 주변, 서울 주변, 경상도 주변에 다양한 탈춤이 있습니다. 어떤 탈춤은 연극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어떤 탈춤은 춤이 도드라집니다. 음악이 발달한 지역이 있고 탈이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춤이 맛있는 탈춤이 있고 재담이 뛰어난 탈춤이 있습니다. 탈춤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각각 탈춤을 정의합니다. 모두 맞는 탈춤입니다.

3. 현대와의 재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통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는데 동시대성인 것 같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던 시기 탈춤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통으로 호명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담아 세상을 풍자했습니다. 시대의 필요로 시작해서 춤을 배웠고 탈춤의 과장들을 전수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탈춤이 거리로 나와 사람들과 시대를 풍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옛 것. 즉, 탈과 춤과 대본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예술가들이 예술의 소재로 예술의 방법으로 탈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와 예술적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이러한 예술적 해석과 움직임이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탈춤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탈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모두에 집중하려는 부담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나누어 집중하고 살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기존 탈춤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이번 작업은 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가악회가 그동안 예술적 내공을 높이고자 고성오광대를 찾아 땀 흘리며 느꼈던 춤의 매력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춤 혹은 무용팀처럼 춤을 위한 무대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정가악회는 음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음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춤을 바라보려

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무대를 상상합니다. 고성오광대의 춤은 탈춤을 넘어 영남지역의 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잘 녹아있다 생각합니다. 영남의 춤이 그렇듯 고성오광대 역시 춤의 매력에 비해 음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굿거리 자진모리를 북, 장구, 팽과리, 징이 연주하고 태평소 정도를 곁들입니다. 춤을 추며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춤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정가악회는 춤을 추는 단체가 아닙니다. 음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춤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춤을 추니까 음악이 머리와 손을 넘어 곳곳의 근육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이번 공연을 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춤이 보여지는 무대를 생각하고, 춤이 잘 보이게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었고, 춤을 통해서 음악으로 깊이 들어오는 경험을 관객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춤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하지는 춤에 대해서 자유롭게 싶습니다. 음악적 상상을 더하고 싶습니다. 춤이 이루고자 했던 자유로움을 공연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 들으시듯 공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를 가면 선생님께서 늘 '신명'을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신명!!'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예술

TIMER

연희양상블 비단



일시 : 2022년 2월 11일(금) ~ 2월 12일(토)

공연시간 : 금 20시 / 토 16시 (총 2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90분 | 티켓 :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 A석 22,000원 | 관람연령 : 14세(중학생 이상) | 예매처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후원/지원 : 닥터조자연한끼, 자연치유아카데미, 한국자연의학회 | 작/연출 : 여울(김소현) | 대표/연희감독 : 조한민 |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턴트 : 김나니 | 기획 : 단은정 | 음악디자이너 : 박준형 | 무대디자이너 : 이승희 | 영상디자이너 : 손경빈 | 조명디자이너 : 이경천 | 의상디자이너 : 이수진 | 그래픽디자이너 : 김다윤 | 소품디자이너 : 진승훈 | 음향감독 : 최윤녕 | 무대감독 : 김예지 | 출연진 : 김나니, 김정욱, 이정동, 위연승, 장수경, 조한민, 박준형, 박지현, 김채령

인간의 수명을 알게 된 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알고 태어나는 미래 시대에서 '한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흘러간다.

<TIMER>는 미래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전통예술로 풀어낸 공연이다.

재조립된 전통연희의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인물의 감정선을 드러낸다. 무대 위 전통예술과 여러 장르의 표현방식이 만나 미래 세계관을 그려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상상하며 만든 공연이다.



연희양상블 비단

비단은 '비(飛)상하는 단(單) 하나의 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과 연희적인 퍼포먼스의 양상블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연희양상블 비단'으로 이름지었다.

현재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비단은 일상공간인 거리부터 무대 위에서의 공연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공유하고자 한다. 젊은 연희팀으로써 지금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무대 위에 녹여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팀이다.

TIMER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알고 태어나는 미래 시대에서 '한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한시는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는 '플래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임종식을 플래닝 해달라며 거액을 제안하는 102번 고객이 나타납니다. 한시는 과연 그를 위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임종식을 잘 준비해나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희극입니다.

2. 전통 연희극에 오늘날의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날의 이야기, 더 나아가 미래의 세계관을 전통예술로 그려낸다면 어떤 모습일 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 고민이 가장 많이 되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시대성을 벗어난 전통연희의 요소들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각각의 언어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장면 안에서 상황으로, 혹은 정서로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3. 극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야기의 특성상 팀원들끼리 '임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자신이 생각하는 임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형태가 모두 달랐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누군가는 쓰레기를 남기지 않게, 누군가는 많은 사람을 불러 연주를 하는 등 형태가 달랐던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4. 한시라는 캐릭터 이름에 대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극중 등장 인물들은 '유한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 아래에서 통제하고자 합니다. 유한한 시간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한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 쓰이는 '한시'는 '찰나'와 닮아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손에 쥐려 해봤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한시'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그 순간들을 어떻게 현존할지에 대해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지 관객들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통예술

꼭두각시

음악동인고물



【 일시 : 2022년 2월 11일(금) ~ 2월 12일(토) 】
 공연시간 : 금 19시 30분 / 토 15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50분 | 티켓 : 30,000원 | 연출/음악감독/작곡 : 이태원 | 안무 : 임진호 | 프로듀서 : 이영찬 | 조명 : 이승호 | 무대감독 : 조은진 | 영상 : 임정은 | 음향 : 오영훈 | PM : 김수안 | 프로덕션 : 이준형, 김진아, 김찬욱, 주혜인, 이유림, 김예은 | 제작 : 음악동인고물 고블린파티 | 기획 : 엘로밤 | 연주자 : 고진호, 배승빈, 홍예진, 소명진, 정준규 | 무용수 : 임진호, 임성은, 이연주

춤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한..

꼭두각시는 춤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다. 또 꼭두각시는 장례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인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두각시는 마리오네트, 수동성의 화신이기도 하다. 이런 중의성을 한 몸에 지닌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무대 위에선 무용수, 연주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논다. 놀면서, 주체와 객체, 지배와 억압의 자리를 바꿔가며, 객체의 다발일 뿐인 주체가 객체를 타자화함으로써 주체 자신을 타자화하는 현장을 재구성한다. 그렇게, 움직임과 소리의 비언어적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메시지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사회와 마주한다.



음악동인고물

음악동인고물은 전통음악 연주, 작곡, 이론 전공자들의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5년 연주 단체로 전환, 현재 4인의 멤버가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며, 여러 고물친구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통음악 관련 창작물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전통음악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대면하면서 대안적 인식을 추구하고 그 내용을 공연화한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공연형 다큐멘터리(staged documentary) <가곡에 접근하는 일곱 가지 방법 - 한 노래의 삶과 죽음>, <국악에 관한 세 가지 논쟁>, <예쁜 백조새끼>, <음악기하학의 두 가지 풀이>, <국악주의자들> 등을 발표해 왔다.

꼭두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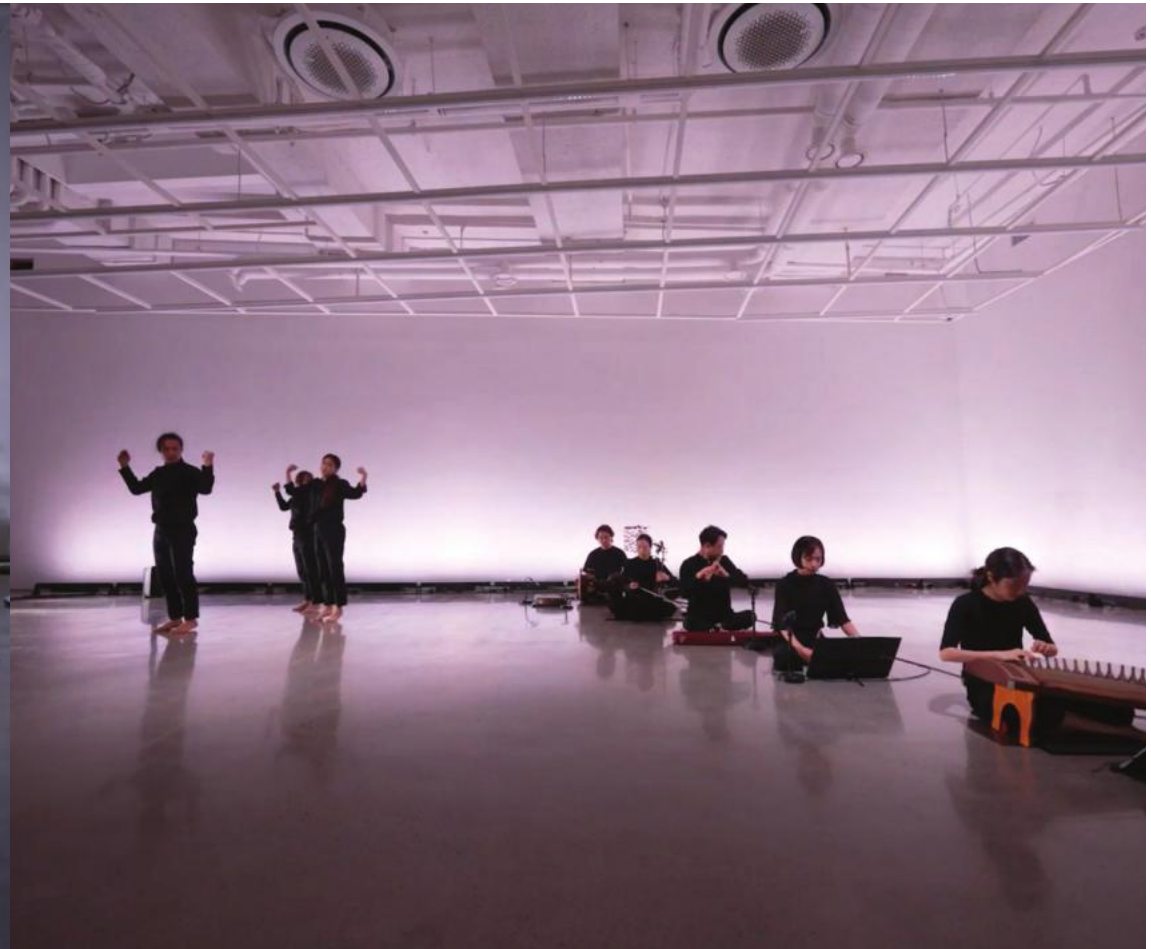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꼭두각시는 춤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합니다. 또 꼭두각시는 장례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인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두각시는 마리오네트, 수동성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의성을 한 몸에 지닌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놀입니다. 주체와 객체, 지배와 억압의 자리를 바꾸며, 객체의 다발일 뿐인 주체가 객체를 타자화함으로써 주체 자신을 타자화하는 현장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 작품 내 여러 개의 장 구분 중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장이 있나요?

쇼케이스의 20분 버전에서는, 마지막 장이었던 '가곡'의 안무 구성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음악과 무용이 서로 주객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공연이 찾고자 하는 것이어서, 안무 구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용수들이 가곡을 몸에 담아보야 했고, 여전히 '아직 먼' 상태에서 없는 길을 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작품의 안에서 무대 장치가 주제를 발화하게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3. '조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조종은 말 그대로 조종입니다. 주체가 객체를 주체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기계의 조종도 조종이고, 그루밍도 정신적 조종입니다. 구현의 방법엔 마임적 요소가 있으며, 모방 동작의 여러 양태들, 역상, 연쇄 등이 동작 간, 그리고 음악과 동작을 이끕니다.

4. 기존 전통예술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우리는 차별화하기보다는 전통예술이 되고자 합니다. 전통예술은 그들 당대에 대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당대에 대응한다면 그 자체로 전통예술과 차별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진 세상에 대응해 우리가 내는 소리와 몸짓이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신작의 발견



창작
오페라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장 총

서울오페라앙상블



일시 : 2022년 1월 22일(토) ~ 1월 23일(일)

공연시간 : 16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99식 소총의 의인화를 통한 전쟁 풍자 우화극

차범석희곡상에 빛나는 연극계의 주목받는 극작가 김은성과 영화 '기생충'의 예견이라는 찬사를 받은 창작오페라 <뚫발 킬러>를 발표하며 오페라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작곡가 안효영의 신선한 드라마와 음악의 오페라 콜라보 무대로서, 제국주의 일본의 군수공장이 있던 인천 부평 조병창에서 생산된 99식 소총의 의인화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마을 사람들의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 한 유랑악극단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해방전후사'를 전쟁 풍자 우화극(寓話劇)으로 다룬 창작오페라.



서울오페라앙상블

서울오페라앙상블(예술감독/장수동)은 1994년 5월, '오페라의 전문화'를 목표로 창단되어 지난 28년간 꾸준히 新作 오페라를 공연해 온 오페라공연 전문단체이다. 연간 수편의 정기공연과 초청 및 협력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오페라 작업'을 줄곧 펼쳐왔다. 서울오페라앙상블은 '한국오페라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도약하고 있는 민간오페라단이다.

러닝타임 : 100분 예정 | 티켓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예술감독 : 장수동 | 작곡 : 안효영 | 대본 : 김은성 |

지휘 : 구모영 | 연출 : 이경재 | 무대미술 : 최진규 | 출연진 : 장총 역/ 김주완, 길남 역/ 최병혁, 선녀 역/ 정시영, 봉석 역/ 석승권,

정아 역/ 이미란, 나무 역/ 장지민 | 오케스트라 : 코리아립오케스트라 | 합창단 : 노이오페라코러스

장 총

1.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여름 지리산 기슭의 한 마을에 [남매 악극단]이 도착합니다. 구멍 난 솔과 냄비에 땀질을 해주며 마을 사람들의 한 심을 산 악극단의 남매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안한 '노민호와 주인애' 공연을 준비합니다. 전쟁 중에 빨치산들에게 가족을 잃은 청년단원 길남이 찾아와 방아쇠가 고장 난 장총 한 자루를 건네며 당장 고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막바지 인천 조병창에서 만들어져 그간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일본군, 독립군, 국방군, 인민군, 학도병, 빨치산의 총으로 살아왔었던 장총은 방아쇠가 고장이 나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줄 알고 좋아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극적인 생명을 이어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새 주인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10대의 청년입니다. 이제 사람을 향해서 그만 총탄을 발사하고픈 장총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남매의 악극이 복수심으로 불타는 청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악기가 되고 싶은' 장총도 희망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2.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일본이 남긴 식민지시대의 잔재와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드라마, 갈등의 서사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 펼쳐져야 마땅한 주제와 소재임에도, 이제 식상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현대사를 오페라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을 관통했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서사를 풀어나가는 방법보다 역사의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이면으로 밀려나고 이야기 속에서도 지워진 '낮은 장총 한 자루' 라는 존재를 가지고 역사의 배후에서 한국 현대사를 노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일제 때 태어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거치며 조용히 늙어간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런 우리 역사의 아픈 이야기. 그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목소리를 노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사적 전개는 물론, 형식적인 면에서도 한국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장총을 주인공으로 의인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악기가 되고 싶은 총!" '장총'은 끔찍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년병사의 하모니카 소리에 매료된 이후, 악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쏘는 총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이후, 장총은 '총을 쏘아야만 하는' 여러 인물들과 교감하거나 소통하면서, 혹은 상처받거나 단절되면서 역사와 인생, 인간의 욕망과 상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해가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의 성숙한 내면은 비극과 함께 성장해가고 그는 더더욱 악기가 되고픈 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오페라의 주제는, "악기가 되고 싶은 총." 그 자체입니다. 전쟁과 폭력의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폭탄 터지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싸우는 시대,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 과연 끝난 것일까요? 음악의 다른 말은 '함께 살아가고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 죽어야만 했던 장총이, 누군가를 살리고 달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장총은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총을 총이 아닌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작품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기에 총을 의인화 하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4. 오페라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일반적인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가사구성과 우리와 동떨어진 배경 및 스토리 등은 아무래도 오페라에 입문하는 관객 분들에게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창작오페라 <장총>은 우리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말로 노래합니다. 초기 진입 장벽 중 큰 부분이 없어진 셈이죠. 모든 예술장르는 익숙해지기 까지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창작오페라 <장총>을 통해 한층 쉽게 오페라의 감동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5.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이번 공연은 지난 28년간 꾸준히 창작오페라를 공연해 온 서울오페라앙상블의 국내 정상급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연극계와 음악계의 주목받는 창작진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며 관객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오페라 <장총>의 세계초연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일정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극장	1월	2월	4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1.07(금)~01.08(토) 모빌리티(Mobility)	02.05(토)~02.06(일) 조동	
	01.14(금)~01.15(토) 굿(Exorcism)-사도	02.11(금)~02.12(토) TIMER	
	01.22(토)~01.23(일) 장충(The Trigger)	02.19(토)~02.27(일) 화로	
	01.28(금)~01.29(토) 정가악회 콘서트<탈춤은 탈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1.28(금)~02.13(일) 탈피	02.18(금)~02.27(일) 낮은 칼바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1.15(토)~01.16(일) 28조톤	02.05(토)~02.06(일) senseless violence (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02.12(토)~02.20(일) 신신방	
		02.25(금)~02.26(토) 윤희매십전(輪回梅十箋)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1.21(금)~01.30(일) 메이드 인 세운상가	02.25(금)~02.26(토) 꼭두각시	
		02.18(금)~02.27(일) 콜타임	
CJ아지트 소극장	01.08(토)~01.30(일) 이상한 나라의 아빠		
아트원씨어터 2관 소극장		02.08(화)~02.20(일) #해시태그	
TOM 1관 중극장			04.01(토)~04.17(일) PIP-위대한유산

티켓 할인 정보

구분	대상	할인율	매수
ARKO	일반회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일반회원	20% 1인 2매
	매니아회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매니아 회원	40% 본인만
	공연예술인회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공연예술인 회원	40% 본인만
	청소년회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청소년 회원	30% 본인만
창작산실	우수 매니아	2020~2021년<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 장르 유료티켓 소지자	40% 본인만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 1인 2매
복지할인		복지카드 / 유공자증 소지자	50% 1인 2매

공연별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으며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작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관람 당일에 할인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정가 기준의 차액을 지불해주시어야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 ◎ 할인권종은 판매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관람 당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모든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에매처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홈페이지 theater.arko.or.kr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고객센터원센터 TEL.02-3668-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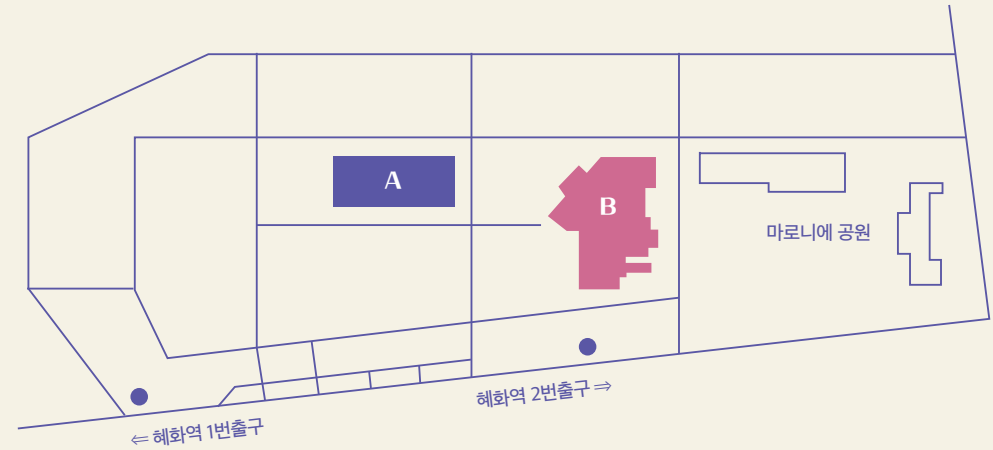
공연장 안내

◎ A 대학로예술극장

서울시 종로구 대학10길 17(동숭동 1-67)

◎ B 아르코예술극장

서울시 종로구 대학8길 7(동숭동 1-11)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안내

- ◎ 버스
 - 헤화역, 마로니에공원 정류장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60, 162, 273, 301, 710, 2112
 - 헤화역, 서울대병원입구 정류장
109, 273, 601, 2112
- ◎ 지하철 4호선 헤화역 2번 출구

주차요금 안내

- ◎ 공연관람객
 - 4시간까지 3,000원
 - 초과 15분마다 1,000원
 - 처음 30분 2,000원
 - 초과 15분마다 1,000원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주차장 동일요금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인 요금의 50% 할인적용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사무처장(직무대행) | 박두현

예술창작본부장(예술극장장 겸직) | 송시경

공연예술부

부장 | 홍승욱

공연예술창작산실 기획운영 | 김효은, 김영일, 정미연, 두송희,

박세빈, 신시은

관객개발 | 정미연

극장운영부

부장 | 정영순

대관·기획 | 오선영, 김상희, 정재은, 이유진, 류정숙, 임나래, 이혜리

홍보·마케팅 | 황금실, 정혜민

하우스 |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티켓 | 이주담, 최예슬, 정혜영, 박소영, 황혜정

고객지원센터 | 천세진

시설 | 이기복, 김환구, 박동진, 박성국, 윤지환, 유효성

무대기술부

부장 | 진용남

무대팀 | 천원욱, 김예곤, 이동선, 신동환, 유창대,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김혜지

조명팀 | 이주환, 탁형선, 곽현주, 김병구, 김지산, 이명환, 김태진,

이태금

음향팀 | 도명호, 김동수, 김경남, 허선영, 이제형, 박인규, 남영모

협력사

홍보운영·영상제작 총괄 | 쉐더존크리에이티브

사진 | 옥상훈, 유경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